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에 따른 진로관련 행동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 차이

윤홍주, 최효식*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Career-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and Academic Outcomes according to Parenting Efficacy Trajectories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Hongju Yun, Hyo-Sik Choi*

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초4-중3)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진로관련 행동,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 7개년도 자료(초4-고1, 2011년-2017년)를 활용하였으며, 잠재계층성장분석, BCH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초4-중3)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은 4개 잠재계층(상수준 증가-감소형, 중상수준 증가-감소형, 중수준 무변화, 중하수준 무변화)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잠재계층의 특징은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시기에는 양육효능감이 증가하지만, 중학교 시기에는 감소하는 반면, 양육효능감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진로관련 행동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었으며, 대체로 상수준 증가-감소형 집단의 자녀가 지각한 진로관련 행동 수준이 높으며, 심리사회적(자아존중감, 우울, 진로장벽인식), 학업적(성취동기, 학업성취) 특성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초4-중3)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진로관련 양육행동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how these trajectories differentiate perceived mothers' career-related behaviors as well as the socio-psychological and academic characteristic of their children in the first grade of high school. The latent class analysis (LCA) and BCH method were applied by using data drawn from the 4th to 10th graders in 2011-2017 from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Results showed that the latent profile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based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y: 'high level increasing-decreasing', 'above average increasing-decreasing', 'average unchanged', and 'below average unchanged'. As for demonstrated outcomes, the high parenting efficacy group increased when children were in elementary school but decreased when children were in middle school. At the same time, the low parenting efficacy group did not show much change during these periods. Next, parenting efficacy wa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perceived mothers' career-related behaviors and socio-psychological and academic characteristic of their children who attend high school.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impli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developing policies to encourage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may result in positive socio-psychological and academic characteristics of their children in high school.

Keywords : Parenting Efficacy, Career-Related Behavior,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이 논문은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ac.kr

Received October 8, 2020

Revised November 9, 2020

Accepted December 4, 2020

Published December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양육(부모)효능감은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 신체 발달에 직접적 또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지 변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양육효능감이 효과적인 양육 특성 및 자녀 발달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양육효능감은 양육 과정을 개선하고 자녀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변인으로 강조되고 있다[5]. 이에 그동안 많은 연구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양육효능감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자녀의 발달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횡단 자료에 기초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화적응, 언어적 어려움, 사회적지지, 자원의 부족 등의 이유로 양육 과정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한 연구[6] 또한 집단 전체의 양육효능감 변화 패턴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집단 내 존재할 수 있는 양육효능감의 다양한 변화 패턴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다집단 변화 패턴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육효능감과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다수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했는데, 고등학교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5, 7], 고등학교 시기의 부모의 진로관련 지원 행동에 양육효능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모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5, 8]. 양육효능감은 양육참여 및 양육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1]. 높은 양육효능감은 종단적 관점에서 지지적 양육행동의 증가와 통제적 양육행동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높은 수준의 부모 지지와 낮은 수준의 부정적 통제

를 보이며[5],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문제해결전략을 덜 사용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더 쉽게 포기하며, 불안 및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재인용]. 특히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제공할 수 있다[2].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양육효능감은 양육방식[13]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학생의 진로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15], 정서조절능력[16], 정서지능[17], 미디어 중독[18], 자아존중감[19-20]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에 대한 잠재계층을 탐색한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잠재계층은 낮은 수준의 양육효능감 집단, 보통의 양육효능감 집단, 높은 수준의 양육효능감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양육효능감 집단의 자녀가 더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보였다[21]. 또한, 양육효능감은 청소년의 행동 문제를 예측하는 중요변인이다[22]. 종단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낮은 효능감은 자녀의 높은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 궤적을 예측하는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23].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다문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방임적 양육태도를 통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4]. 이는 양육효능감에 기인하는 부모의 긍정적, 지원적 양육행동 및 심리적 특성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학업 관련 특성 및 지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25], 성취동기[20], 학교생활적응[26], 학업성취[27]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28], 성취동기[29]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낮은 어머니보다 가정에서 더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30], 부모교육 참여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31].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의 경우 자신이 자녀의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참여한다[32].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성장

하는 과정(초4-중3)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진로관련 행동,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1)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초4-중3)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변화 궤적은 몇 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되는가?
- 2)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진로관련 행동,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 7개년도 자료(초4-고1, 2011년-2017년)를 활용하였으며,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가정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의 조사방법은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로 진행되었으며, 학부모(어머니)의 경우는 한국어 및 총 9개 국어(외국어 밑에 한국어도 함께 제시)로 번역되어 제

공되는 CAPI 중 선택하여 응답하였다[33]. 초4-중3 시기의 6개 시점의 양육효능감 응답 자료 중 3개 시점 이상 응답한 사례, 2017년 데이터의 응답 자료가 있는 사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184명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을 7차년도(2016년, 자녀 고1) 기준으로 제시하면 4점 만점(1: 전혀 못함, 2: 못하는 편, 3: 잘하는 편, 4: 매우 잘함)에 말하기 3.17, 쓰기 2.84, 읽기 3.06, 듣기 3.20이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인 양육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 성취동기, 학교성적, 진로장벽 인식, 어머니 진로관련 행동의 기술통계는 Table 1과 같다.

2.2.1 양육효능감

초4(1차년도, 2011년)-중3(6차년도, 2016년) 시기까지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6개 시점에 동일한 9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d variables

| Variables | | Number of items | M | SD | Min | Max | Skewness | Kurtosis |
|--------------------------|------------------------------------|-----------------|------|-----|------|------|----------|----------|
| Parenting efficacy | 2011 | 9 | 3.64 | .52 | 1.22 | 5.00 | -.14 | .38 |
| | 2012 | 9 | 3.67 | .51 | 1.89 | 5.00 | -.23 | .21 |
| | 2013 | 9 | 3.67 | .51 | 1.78 | 5.00 | -.07 | .16 |
| | 2014 | 9 | 3.62 | .52 | 1.22 | 5.00 | -.26 | .83 |
| | 2015 | 9 | 3.59 | .52 | 1.44 | 5.00 | -.28 | .58 |
| | 2016 | 9 | 3.58 | .52 | 1.89 | 5.00 | -.03 | .05 |
| Self-esteem | | 9 | 3.81 | .54 | 1.44 | 5.00 | -.19 | .06 |
| Depression | | 10 | 1.74 | .55 | 1.00 | 3.80 | .33 | -.46 |
| Social withdrawal | | 5 | 2.39 | .72 | 1.00 | 4.00 | -.21 | -.38 |
| Achievement motivation | | 8 | 3.02 | .44 | 1.00 | 4.00 | -.05 | 1.28 |
| Academic achievement | | 5 | 3.00 | .67 | 1.00 | 5.00 | -.12 | .71 |
| Career barriers | Lack of self-apprehension | 3 | 2.21 | .76 | 1.00 | 4.00 | -.01 | -.65 |
| | Lack of career-related information | 3 | 2.25 | .70 | 1.00 | 4.00 | -.15 | -.49 |
| | Lack of financial support | 3 | 2.00 | .66 | 1.00 | 4.00 | .11 | -.53 |
| Career-related behaviors | Support | 3 | 2.80 | .67 | 1.00 | 4.00 | -.55 | .67 |
| | Interference | 3 | 1.86 | .66 | 1.00 | 4.00 | .54 | -.14 |
| | Lack of engagement | 2 | 1.81 | .68 | 1.00 | 4.00 | .47 | -.29 |

* p<.05, ** p<.01, *** p<.001

[3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78$, 2차 $\alpha=.82$, 3차 $\alpha=.83$, 4차 $\alpha=.83$, 5차 $\alpha=.83$, 6차 $\alpha=.82$ 이다.

2.2.2 자아존중감

고1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7차년도(2017년) 자료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9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82$ 이다.

2.2.3 우울

고1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7차년도(2017년) 자료의 우울을 측정하는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91$ 이다.

2.2.4 사회적 위축

고1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7차년도(2017년) 자료의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수줍어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91$ 이다.

2.2.5 성취동기

고1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7차년도(2017년) 자료의 성취동기를 측정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87$ 이다.

2.2.6 학교성적

고1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7차년도(2017년) 자료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매우 못하는 편이다(1점)~'매우 잘하는 편이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3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76$ 이다.

2.2.7 진로장벽인식

고1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인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7차년도(2017년) 자료의 진로장벽인식을 측정하는 자기이해 부족(3문항),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3문항), 경제적 어려움(3문항)의 3요인 총 9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자기이해 부족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나는 다양한 직업의 종류에 대해 알지 못한다.', 경제적 어려움 '대학을 생각하면 돈 걱정이 앞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자기이해 부족 $\alpha=.90$,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alpha=.86$, 경제적 어려움 $\alpha=.80$ 이다.

2.2.8 어머니 진로관련 행동

고1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진로관련 행동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7차년도(2017년) 자료의 진로관련 행동을 측정하는 지지(3문항), 간섭(3문항), 관여부족(2문항)의 3요인, 총 8문항을 사용하였다. 관여부족은 원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문항('직장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진로준비를 도와주실 수 없으시다.')은 어머니가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지지 '나에게 가능한 진로들의 선택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간섭 '나의 진로를 당신의 생각대로 이루려고 하신다.', 관여 부족 '너무 바쁘셔서 나의 진로 준비를 도와주실 수 없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지지 $\alpha=.87$, 간섭 $\alpha=.81$, 관여부족 $\alpha=.69$ 이다.

2.3 분석 방법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어머니의 진로관련 행동과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CH 방법(BCH method)을 사용하였다[34]. 분석을 위해 Mplus 8.3,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결측치 처리를 위해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어머니(1차년도, 2011년 자료 기초)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7차년도, 2017년 자료 기초)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 출신국가는 중국(한족, 기타민족) 87명(7.3%), 중국(조선족) 212명(17.9%), 베트남 29명(2.4%), 필리핀 320명(27.0%), 일본 428명(36.1%), 태국 49명(4.1%), 기타 59명(5.0%)이며, 연령은 20대 19명(1.6%), 30대 504명(42.6%), 40대 624명(52.7%), 50대 이상 37명(3.1%)이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성별은 남자 580명(49.0%), 여자 604명(51.0%)이며, 연령은 15세 88명(7.4%), 16세 1,055명(89.1%), 17세 37명(3.1%), 18세 4명(3%)이다.

3.2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궤적을 설명하는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곡선변화모형을 비교, 분석 하였으며, Table 3에 제시된 것처럼 이차곡선변화모형이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궤적을 상대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차곡선변화 특성에 기초하여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확인하기 위해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84)

| Variables | Category | N | % |
|-----------------------|--------------|-------|------|
| Mother's nationality | Chinese | 87 | 7.3 |
| | Ethnic Korea | 212 | 17.9 |
| | Vietnam | 29 | 2.4 |
| | Philippine | 320 | 27.0 |
| | Japan | 428 | 36.1 |
| | Thailand | 49 | 4.1 |
| | Etc | 59 | 5.0 |
| Mothers' age (yr) | 20-29 | 19 | 1.6 |
| | 30-39 | 504 | 42.6 |
| | 40-49 | 624 | 52.7 |
| | <50 | 37 | 3.1 |
| Adolescents' gender | Male | 580 | 49.0 |
| | Female | 604 | 51.0 |
| Adolescents' age (yr) | 15 | 88 | 7.4 |
| | 16 | 1,055 | 89.1 |
| | 17 | 37 | 3.1 |
| | 18 | 4 | .3 |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잠재계층이 2개~6개인 모형을 비교하였으며, 해석 가능성, 잠재계층 분류율, 모형 적합도 등을 고려했을 때 잠재계층이 4개인 모형이 다른 모형보다 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이 4개인 모형의 평균 사후확

Table 3. Information for model selection

| Model | χ^2 | df | CFI | TLI | RMSEA(90% C.I.) | SRMR | Mean | | |
|-----------|------------|----|------|------|-----------------|------|-----------|----------|-----------|
| | | | | | | | Intercept | Linear | Quadratic |
| No growth | 194.897*** | 19 | .934 | .948 | .088(.077-.100) | .101 | 3.631*** | | |
| Linear | 39.272** | 16 | .991 | .992 | .035(.021-.049) | .036 | 3.671*** | -.016*** | |
| Quadratic | 20.113 | 12 | .997 | .996 | .024(.000-.042) | .030 | 3.652*** | .012 | -.005** |

* p<.05, ** p<.01, *** p<.001

Table 4. Fit indices for unconditional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models

| Model | AIC | BIC | SABIC | Entropy | LMR LRT(p) | BLRT(p) | Class proportions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 2 | 9047.725 | 9113.721 | 9072.428 | .768 | .0000 | .0000 | 54.1 | 45.9 | | | | |
| 3 | 8527.306 | 8613.610 | 8559.611 | .772 | .0572 | .0000 | 29.2 | 16.1 | 54.6 | | | |
| 4 | 8291.505 | 8398.114 | 8331.411 | .798 | .0005 | .0000 | 5.4 | 41.0 | 43.6 | 10.1 | | |
| 5 | 8240.048 | 8366.964 | 8287.555 | .727 | .4630 | .0000 | 26.5 | 24.6 | 3.2 | 39.5 | 6.2 | |
| 6 | 8192.650 | 8339.873 | 8247.758 | .713 | .2138 | .0000 | 34.1 | 27.8 | 7.4 | 2.2 | 7.1 | 2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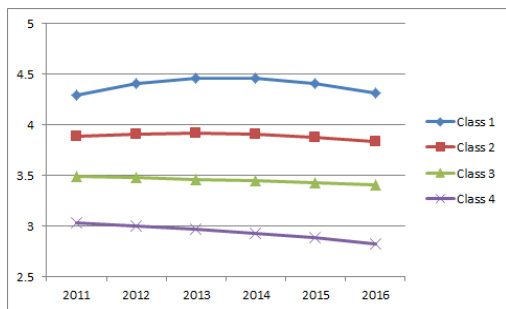
률은 .88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양육효능감 변화 궤적에 대한 4개 잠재계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체의 5.4%인 64명이 포함된 첫 번째 잠재계층은 초깃값 4.299(p<.001), 선형변화율 .131(p<.05), 이차변화율 -.026(p<.05)이며, '상수준 증가-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의 41.0%인 485명이 포함된 두 번째 잠재계층은 초깃값 3.888(p<.001), 선형변화율 .031(p<.05), 이차변화율 -.008(p<.01)이며 '중상수준 증가-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의 43.6%인 516명이 포함된 세 번째 잠재계층은 초깃값 3.496(p<.001), 선형변화율 -.015(p>.05)이차변화율 .000(p>.01)이며, '중수준 무변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의 10.1%인 119명이 포함된 네 번째 잠재계층은 초깃값 3.033(p<.001), 선형변화율 -.024(p>.05), 이차변화율 -.003(p>.05)이며 '중하수준 무변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Table 5.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classes

| Latent classes | Estimate(S.E.) | | |
|----------------|--------------------|-----------------|-------------------|
| | Intercept | Linear | Quadratic |
| 1 | 4.299*** (.069) | .131* (.062) | -.026* (.011) |
| 2 | 3.888*** (.040) | .031* (.014) | -.008** (.003) |
| 3 | 3.496*** (.032) | -.015 (.016) | .000 (.003) |
| 4 | 3.033*** (.057) | -.024 (.035) | -.003 (.006) |

* p<.05, ** p<.01, *** p<.001



※ Class 1: high level increasing-decreasing, Class 2: above average increasing-decreasing, Class 3: average unchanged, Class 4: below average unchanged

Fig. 1. Profile plot of 4-class models

3.3 잠재계층에 따른 진로관련 행동 및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 차이 검증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에 따른 진로관련 행동 및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CH 방법(BCH method)

에 기초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Table 6에 제시된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진로관련 행동 중 지지, 관여부족에서 잠재계층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1(상수준 증가-감소형), 2(중상수준 증가-감소형)집단이 잠재계층 3(중수준 무변화), 4(중하수준 무변화)집단보다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잠재계층 1집단이 잠재계층 2, 3, 4 집단보다 관여부족을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잠재계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중 사회적 위축을 제외한 자아존중감, 우울, 진로장벽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 1(상수준 증가-감소형), 2(중상수준 증가-감소형), 3(중수준 무변화), 4(중하수준 무변화)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수준은 잠재계층 4집단이 잠재계층 1, 2, 3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인식의 하위 요인인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모두 잠재계층 2, 3, 4집단이 1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잠재계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업적 특성인 성취동기, 학업성적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 학업성적 모두 잠재계층 1(상수준 증가-감소형), 2(중상수준 증가-감소형)집단이 잠재계층 3(중수준 무변화), 4(중하수준 무변화)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초4-중3)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진로관련 행동,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초4-중3)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무변화, 선형으로 변화하기보다는 초등학교 시기에 양육효능감의 변화가 없다가 중학교 시기에 양육효능감이 다소 감소하는 이차곡선 형태로 변화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차곡선변화모형에 기초했을 때 양육효능감의 변화 형태는 4개의 이질적인 특징을 갖는 잠재계층(상수준 증가-감소형 집단, 중상수준 증가-감소형

Table 6. Equality tests of means across classes using the BCH procedure

| Variables | Latent Classes | N | M | S.E. | χ^2 (Significant pairwise comparisons) |
|--|----------------|-----|-------|------|--|
| Career-related behaviors: Support | Class1 | 64 | 2.962 | .098 | 24.743*** (4<3<1,2) |
| | Class2 | 485 | 2.886 | .035 | |
| | Class3 | 516 | 2.753 | .033 | |
| | Class4 | 119 | 2.533 | .076 | |
| Career-related behaviors: Interference | Class1 | 64 | 1.721 | .103 | 2.645 |
| | Class2 | 485 | 1.880 | .034 | |
| | Class3 | 516 | 1.863 | .034 | |
| | Class4 | 119 | 1.803 | .071 | |
| Career-related behaviors: Lack of engagement | Class1 | 64 | 1.558 | .089 | 10.983* (1<2,3,4) |
| | Class2 | 485 | 1.800 | .035 | |
| | Class3 | 516 | 1.838 | .035 | |
| | Class4 | 119 | 1.901 | .073 | |
| Self-esteem | Class1 | 64 | 4.396 | .068 | 236.788*** (4<3<2<1) |
| | Class2 | 485 | 3.974 | .025 | |
| | Class3 | 516 | 3.686 | .025 | |
| | Class4 | 119 | 3.310 | .057 | |
| Depression | Class1 | 64 | 1.626 | .078 | 8.826* (1,2,3<4) |
| | Class2 | 485 | 1.725 | .029 | |
| | Class3 | 516 | 1.722 | .028 | |
| | Class4 | 119 | 1.891 | .061 | |
| Social withdrawal | Class1 | 64 | 2.227 | .113 | 7.441 (1,2<4) |
| | Class2 | 485 | 2.345 | .037 | |
| | Class3 | 516 | 2.412 | .036 | |
| | Class4 | 119 | 2.520 | .076 | |
| Career barriers: Lack of self-apprehension | Class1 | 64 | 1.773 | .109 | 22.950*** (1<2,3,4; 2<4) |
| | Class2 | 485 | 2.204 | .039 | |
| | Class3 | 516 | 2.239 | .039 | |
| | Class4 | 119 | 2.390 | .079 | |
| Career barriers: Lack of career-related information | Class1 | 64 | 1.858 | .100 | 25.658*** (1<2,3,4; 2<4) |
| | Class2 | 485 | 2.231 | .037 | |
| | Class3 | 516 | 2.288 | .036 | |
| | Class4 | 119 | 2.434 | .068 | |
| Career barriers: Lack of financial support | Class1 | 64 | 1.626 | .086 | 25.230** (1<2,3,4; 3<4) |
| | Class2 | 485 | 2.019 | .035 | |
| | Class3 | 516 | 2.001 | .033 | |
| | Class4 | 119 | 2.164 | .067 | |
| Achievement motivation | Class1 | 64 | 3.219 | .064 | 25.891*** (3,4<2<1) |
| | Class2 | 485 | 3.064 | .022 | |
| | Class3 | 516 | 2.985 | .022 | |
| | Class4 | 119 | 2.876 | .054 | |
| Academic achievement | Class1 | 64 | 3.391 | .103 | 38.188*** (4<3<2<1) |
| | Class2 | 485 | 3.067 | .035 | |
| | Class3 | 516 | 2.947 | .033 | |
| | Class4 | 119 | 2.751 | .066 | |

* Class 1: high level increasing-decreasing, Class 2: above average increasing-decreasing, Class 3: average unchanged, Class 4: below average unchanged

* p<.05, ** p<.01, *** p<.001

집단, 중수준 무변화 집단, 중하수준 무변화 집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잠재계층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잠재계층은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성장(초4-중3)하는 6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

의 양육효능감을 보이며, 초등학교 시기 동안은 증가하다가 중학교 시기에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상수준 증가-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64명(5.4%)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잠재계층은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성장(초4-중3)하는 6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양육효능감을 보이며, 초등학교 시기 동안은 증가하다가 중학교 시기에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중상수준 증가-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516명(43.6%)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잠재계층은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성장(초4-중3)하는 6년 동안 초깃값 3.496과 변화가 없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중수준 무변화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516명(43.6%)이 포함되었다. 네 번째 잠재계층은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성장(초4-중3)하는 6년 동안 초깃값 3.033과 변화가 없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중하수준 무변화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119명(10.1%)이 포함되었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잠재계층은 첫째,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시기에는 양육효능감이 증가하지만, 중학교 시기에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초등학교 시기보다 중학교 시기에서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에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며[35-36], 우울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37]. 이와 같은 다문화 중학생 자녀의 심리적, 학교적응 측면의 어려움이 부모 역할 수행의 자신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양육효능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성장(초4-중3)하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 수준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양육효능감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전문상담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양육효능감 수준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 초등학교 및 중학생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및 고충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양육효능감 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궤적(초4-중3)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진로관련 행동 중 지지, 관여부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1(상수준 증가-감소형), 2(중상수준 증가-감소형) 집단이 잠재계층 3(중수준 무변화), 4(중하수준 무변화) 집단보다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잠재계층 1(상수준 증가-감소형)집단이 잠재계층 2(중상수준 증가-감소형), 3(중수준 무변화), 4(중하수준 무변화) 집단보다 관여부족을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효능감이 지지적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5, 7]. 본 연구결과는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온정적 양육행동

뿐 아니라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진로와 관련된 정보 제공, 조언 등의 지지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이 자녀의 진로결정성, 진로장벽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38],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다문화 가정 고등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궤적(초4-중3)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중 사회적 위축을 제외한 자아존중감, 우울, 진로장벽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 1(상수준 증가-감소형), 2(중상수준 증가-감소형) 3(중수준 무변화), 4(중하수준 무변화)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수준은 잠재계층 4집단이 잠재계층 1, 2, 3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인식의 3개 하위 요인(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모두에서 잠재계층 2, 3, 4집단이 1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15], 자아존중감[19-20] 등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39],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자녀가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모델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높은 자기효능감을 예측하게 되며[40],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결과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부정적인 믿음인 진로장벽인식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궤적(초4-중3)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업적 특성인 성취동기, 학업성적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 학업성적 모두 잠재계층 1(상수준 증가-감소형), 2(중상수준 증가-감소형)집단이 잠재계층 3(중수준 무변화), 4(중하수준 무변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신이 자녀의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참여할 뿐 아니라 최선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30-32]. 이와 같은 부모의 교육적 지원이 자녀의 성취동기 및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일반 가정 및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양육효능감 관련 연구들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및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와 자녀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한 연구[6] 또한 다문화 가정 어머니 집단 전체의 양육효능감 변화 패턴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4개 잠재계층(상수준 증가-감소형, 중상수준 증가-감소형, 중수준 무변화, 중하수준 무변화)으로 차별적인 변화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지원 정책 수립 시 다집단 변화 패턴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대다수 선행연구들이 양육효능감이 일반적인 양육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반면[5, 7],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이 고등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진로관련 지원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은 잠재계층의 자녀가 진로관련 지원 행동 수준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동안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발달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연구들이 대다수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높은 고등학생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이 있다. 양육효능감 수준이 가장 높은 상수준 증가-감소형 잠재계층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이 우수하다는 결과는 다문화 가정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 적응의 보호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궤적을 확인하였다. 아버지 또한 자녀 발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정 한국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경험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 변화 양상에 따른 진로관련 행동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후속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일반 가정 부모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 부모 간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의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 또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초4-중3)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변화 양상은 4개 잠재계층(상수준 증가-감소형, 중상수준 증가-감소형, 중수준 무변화, 중하수준 무변화)으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잠재계층의 특징은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시기에는 양육효능감이 증가하지만, 중학교 시기에는 감소하는 반면, 양육효능감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진로관련 행동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차이가 났으며, 대체로 상수준 증가-감소형 집단의 자녀가 지각한 진로관련 행동 수준이 높으며, 심리사회적(자아존중감, 우울, 진로장벽인식), 학업적 특성(성취동기, 학업성취)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초4-중3)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진로관련 양육행동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ferences

- [1] A. M. Albanese, G. R. Russo, P. A. Geller, "The role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of associated outcomes",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Vol.45, No.3, pp.333-363, 2019.
DOI: <https://doi.org/10.1111/cch.12661>
- [2] P. K. Coleman, K. H. Karraker,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Vol.18, No.1, pp.47-85, 1998.

- DOI: <http://dx.doi.org/10.1006/drev.1997.0448>
- [3] C. L. Costigan, C. M. Koryzma,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among immigrant Chinese parents: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8, No.2, pp.183-196, 2011.
DOI: <https://doi.org/10.1037/a0021696>
- [4] W. Heerman, J. Taylor, K. Wallston, S. Barkin, "Parenting self-efficacy, parent depression, and healthy childhood behaviors in a low-income minority population: A cross-sectional analysis",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Vol.21, No.5, pp.1156-1165, 2017.
DOI: <https://doi.org/10.1007/s10995-016-2214-7>
- [5] T. L. Jones, R. J. Prinz,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25, No.3, pp.341-363, 2005.
DOI: <http://dx.doi.org/10.1016/j.cpr.2004.12.004>
- [6] M. S. Kim, "A study on the change of parental self-efficacy and school education participation of foreign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with latent growth model: Focus on parents of elementary 4th graders to 3rd graders in middle school", *Korean Journal of Parents and Guardians*, Vol.7, No.1, pp.49-75, 2020.
- [7] I. Roskam, J. C. Meunier, "The determinants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trajectories: The effects of parental and child time-varying and time-invariant predi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36, No.3, pp.186-196, 2012.
DOI: <https://doi.org/10.1177/0165025411434651>
- [8] D. M. Teti, D. M. Gelfand,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Vol.62, No.5, pp.918-929, 1991.
DOI: <https://doi.org/10.2307/1131143>
- [9] R. Giallo, K. Treyvaud, A. Cooklin, C. Wade, "Mothers' and fathers' involvement in home activities with their children: Psychosocial factors and the role of parental self-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Vol.183, No.3-4, pp.343-359, 2013.
DOI: <https://doi.org/10.1080/03004430.2012.711587>
- [10] S. Mathew, F. Zhai, Q. Gao, "Social support and parental nurturance among Asian Indian families in the US: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elf-efficacy",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38, No.3, pp.354-369, 2017.
DOI: <https://doi.org/10.1007/s10834-017-9530-y>
- [11] M. J. Kim, J. H. Kim, M. N. Lee, "The effects of the parent's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parental parenting-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2, pp.385-403, 2018.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12.385>
- [12] J. Kohlhoff, B. Barnett, "Parenting self-efficacy: Links with maternal depression, infant behaviour and adult attachment", *Early Human Development*, Vol.89, No.4, pp.249-256, 2013.
DOI: <http://dx.doi.org/10.1016/j.earlhumdev.2013.01.008>
- [13] M. H. Jung,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practices of immigrant women focusing on parent 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0, No.8, pp.258-277, 2013.
- [14] E. M. Yeon, H. S. Choi, "Relations among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child's perception of parent's career-relation behaviors and career barrier: Multigroup analysis in gende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0, pp.121-140,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10.121>
- [15] H. J. Lim, "A study on effects of children's self-esteem, mothers' self-esteem, and mothers' parenting efficacy on th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9, No.4, pp.39-56, 2017.
- [16] Y. J. Park, M. K.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15, No.5, pp.47-68, 2019.
DOI: <http://dx.doi.org/10.14698/jkce.2019.15.05.047>
- [17] Y. H. Kim, S. Y.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happines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8, No.4, pp.119-131, 2019.
DOI: <http://dx.doi.org/10.17643/KJCE.2019.28.4.07>
- [18] J. O. Jo, E. J. Kim,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child's media addic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9, pp.1189-1208,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9.1189>
- [19] K. H. Cho, M. H. Do, "The effects of mothers' happiness and parenting stress on young children's self-esteem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1, No.4, pp.725-744, 2016.
DOI: <http://dx.doi.org/10.13049/kfwa.2016.21.4.6>
- [20] H. H. Lee, "A longitudinal study on the parenting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ication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24 No.11, pp.209-218, 2019.
DOI: <https://doi.org/10.9708/jksci.2019.24.11.209>
- [21] N. Junttila, M. Vauras, "Latent profiles of parental self-efficacy and children's multisource-evaluated social competenc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 Psychology, Vol.84, No.3, pp.397-414, 2014.
DOI: <https://doi.org/10.1111/bjep.12040>
- [22] L. E. Dumka, N. A. Gonzales, L. A. Wheeler, R. E. Millsap,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over time in Mex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24, No.5, pp.522-531, 2010.
DOI: <https://doi.org/10.1037/a0020833>
- [23] M. N. Ahun, A. Consoli, J.-B. Pingault, B. Falissard, M. Battaglia, M. Boivin, R. E. Tremblay, S. M. Côté, "Maternal depression symptoms and internalising problems in the offspring: The role of maternal and family factor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27, No.7, pp.921-932, 2017.
DOI: <https://doi.org/10.1007/s00787-017-1096-6>
- [24] R. H. Lee, H. I. Choi, "The influence of maternal acculturative stress on adolescents' internalizing problems through daily maternal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neglectful parenting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5, No.2, pp.117-139, 2020.
DOI: <https://doi.org/10.13049/kfwa.2020.25.2.1>
- [25] L. Markazi, R. Badrigargari, S. Vahedi, "The role of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renting styles on self-regulation learning in adolescent girls of Tabriz",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30, pp.1758-1760, 2011.
DOI: <https://doi.org/10.1016/j.sbspro.2011.10.339>
- [26] S. R. Kim, S. H. Lee, Y. J. Koo, K. Y. Lee, "The effect of parental school involvemen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23, No.4, pp.139-154, 2016.
DOI: <http://dx.doi.org/10.15284/kjhd.2016.23.4.139>
- [27] N. Junntila, M. Vauras, E. Laakkonen, "The role of parenting self-efficacy in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Vol.22, No.1, pp.41-61, 2007.
DOI: <https://doi.org/10.1007/BF03173688>
- [28] Y. M. Lim, "Effect of married immigrant women's acculturative stress on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 children: Mediating roles of school involvement and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8, No.6, pp.615-627, 2019.
DOI: <http://dx.doi.org/10.5934/kihe.2019.28.6.615>
- [29] R. H. Lee, H. L. Chang, "The influence of maternal acculturative stress on the child's achievement motivation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and ego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66, pp.65-95, 2019.
DOI: <https://doi.org/10.24300/ikscw.2019.06.66.65>
- [30] K. E. Bojczyk, H. R. Haverback, H. K. Pae, "Investigating maternal self-efficacy and home learning environment of families enrolled in head start",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Vol.46, pp.169-178, 2017.
DOI: <https://doi.org/10.1007/s10643-017-0853-y>
- [31] S. J. Lim, S. K. Jeon, "The influence of middle-high school parent's parenting stress, parent efficacy, depression and participation of parent education on child's life competenc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28, No.4, pp.123-137, 2016.
- [32] K. V. Hoover-Dempsey, H. M. Sandler, "Why do parents become involved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67, No.1, pp.3-42, 1997.
DOI: <https://doi.org/10.3102/00346543067001003>
- [33] <https://www.nypi.re.kr/archive>
- [34] T. Asparouhov, B. Muthén,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21, No.3, pp.329-341, 2014.
DOI: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181>
- [35] H. H. Park, S. B. Oh, "A study of school adaption of multicultural students a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level", *Korean Education Inquiry*, Vol.32, No.2, pp.35-57, 2014.
- [36] E. M. Yeon, H. S. Choi, "Estimating the longitudinal change in academic achievement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by piecewise growth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7 pp.370-379,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7.370>
- [37] K. H. Han,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among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48, No.1, pp.56-83, 2020.
DOI: <http://dx.doi.org/10.24301/MHSW.2020.03.48.1.56>
- [38] E. M. Yeon, H. S. Choi, "Latent profile analysis i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 of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children's career, psychological and academic outcom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8, pp.305-325, 2019.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9.19.8.305>
- [39] A. Bandura, G. V. Caprara, C. Barbaranelli, C. Regalia, E. Scabini, "Impact of family efficacy beliefs on quality of family functioning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60, No.3, pp.421-448, 2011.
DOI: <https://doi.org/10.1111/j.1464-0597.2010.00442.x>
- [40] M. Ardel, J. Eccles,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Vol.22, No.8, pp.944-972, 2001.

윤 홍 주(Hongju Yun)

[정회원]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춘천교육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행정, 교육정책평가, 교육재정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
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